

방북 '준비' 된 교황에 문 대통령 "그날 곧 오길" 기대감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황·2018년 10월18일), "그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2021년 6월5일)

오스트리아 국민 방문 중에 중세 수도원을 찾은 문 대통령이 3년 전 무산됐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추진 사실을 새롭게 환기하면서 실제 방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재개된 대면 정상교류를 계기로 각국 추경면담 일정을 잇따라 잡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교황 방북 재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국민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함께 중세 시대에 건립된 하일리겐크라이츠 수도원을 방문하고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막스밀리안 하임 수도원 원장과 만남에서 "2018년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나의 방북 제안을 수락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가교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직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그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0월 유럽 5개국 순방 당시 바티칸을 찾아 교황과 만나 주고받은 방북 추진 사실을 환기한 것이다.

당시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성사 여부 '관심집중'

해외순방마다 천주교 인사들 만나며 교황 방북 환기
방북 분위기 우호적... 유흥식 주교 교황청 장관 임명
천주교 신자 바이든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연 깊어
靑 박수현 "올 여름쯤 되면 방북 문제 쉽게 풀릴 수도"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확인한 방북 초청 의사를 교황에게 전달했고 교황은 이탈리아어로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소노 디스포니비레(sono disponibile)"라고 밝히며 사실상 초청을 수락했다.

이후 바티칸 관례에 따라 교황은 김 위원장의 공식 초청을 기다렸지만 약 5개월 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결국 방북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면 정상외교 국면에서 각국의 추경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교황의 발언 등을 재차 언급하면서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그레고리 추기경 겸 워싱턴 대주교를 만나서도 교황의 방북 메시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건이 되면 북한을 방문해 평화를 도모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스페인에서도 국민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성 가족성당)을 방문해 후안 호세 오메야 추기경과 한반도 평화 등과 관련해 환담을 나눴다.

후안 호세 추기경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늘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대통령 가족과 한국 가톨릭 신자를 위한 기도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교황 방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황도 우호적인 편이다. 지난 11일



스페인을 국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지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을 방문, 후안 호세 오메야 추기경과 환담하고 있다.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한국 성직자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고위직인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됐다.

그동안 남북관계와 관련해 교황청과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 대주교는 임명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교황님의 방북을 추진하는 역할이 맡겨진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대주교는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북한이 교황님을 초청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천주교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연도 주목할 만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쿠버웨의 국교 정상화 공식 선언 당시 부통령으로서 교황과 물밑에서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바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교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교황과 연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뜻을 모은 만큼, 교황의 방북을 재추진하기에도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인적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대화 와 대결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북한이 대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교황의 방북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지만, 그에 앞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지 않고서는 교황 방북은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 대주교는 방북을 통해 여러가지 지원 사업을 하려나 하신 분이기에 교황님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최선의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며 "여건들이 성숙해서 그런 결과로 (교황 방북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은 "코로나 극복 문제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는 올려놓는다면, 교황님의 방북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쉽게 되지 않겠나"라며 "이 문제는 코로나의 상황과 북한의 반응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종합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고 시기도 판단해봐야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국힘 대표와 전북현안 논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원주군 일진하이슬루사에서 전북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진안 농식품산업 발전 정책화 의지 피력

이한기 도의원, 대표기업 현장간담회 참여 "좋은 의견 도정에 제안"

코로나19 여파와 내수경기 침체 등 최근 지역 농식품 기업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진안지역 농식품산업 대표기업 현장간담회가 지난 18일 진안홍삼연구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기 전북도위원을 비롯해 김동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김장배 진안홍삼한방물류센터사업단장, 유경종 한국고려홍삼

대표 등 진안지역 9개 농식품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정책 및 주요사업 소개와 진안지역 참석업체별 현황소개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에 이어, 진흥원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와 진안지역 농식품산업 발전 방향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기 도의원은 "경쟁력을 가진 특



산품이 풍부한 진안지역에 농식품 선도가기업이 적다"며 "오늘 논의된 진안지역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제안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농가 어려움 덜어드리는 것도 현장 의정'

도의회 문건위, 남원 야양 포도농가 찾아 일손돕기 나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 야양면의 포도 농가를 찾아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아침부터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도 순 가지치기에 온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은 "올해 농

촌에 인력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도의회에서 일손을 덜어줘 한시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뤄졌다.

이정린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 구하기가 힘든 시기에 농가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손 돕기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해양·농수산 정책 도민 위해 추진해야"

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예비비지출 심사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결산심사 3일 차인 지난 18일 전북도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제개발원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실시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전용의 합법적인 업무처리 당부 등 결산심사뿐만 아니라, 각 실·국의 주요 예산투입 사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인제개발원 소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유지관리사업은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개정'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 집행에 합법적인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 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

는 재배작물 계획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적자원개발센터의 드론교육이 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장소를 전북 내에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농업기술원과 인재개발원이 연계, 소속공무원의 드론 등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권장해 업무추진에 현장감 있는 지원"이 되길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올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산물 수출 지원정책에 비해, 수산물 관련 수출 지원정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훈열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도내 향민 중 갯벌에 토사가 쌓이는 문제로 향민기능을 잃어가는 현상을 언급하며, "준설토 매립장 마련을 위해 현장조사 및 국가 지원사업 파

악 등 해양수산부 외 중앙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속도전"을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8)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개통연계망 업자 선정 진행 상황을 묻고 "전북도는 SK E&S의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새만금 청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익을 우선해 강력한 입장표명과 중재 노력이 필요"라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봐, "현재 새만금수질 개선에 위한 성과지표 대상인 민경강과 익산천 외에 동진강도 지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수질 측정위치를 '인' 성분 의 새만금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성분들에 대한 지표 반영을 추가 검토"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은 지난 18일 군산동충학교와 구암초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가칭)연안초등학교 등 4곳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학생 안전 위협 시설, 초기 발견·개선 노력"

김종식 도의원, 군산동충 등 학교 4곳 찾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의원은 지난 18일 군산동충초등학교와 구암초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가칭)연안초등학교 등 4곳을 방문해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김 의원은 "크고 작은 학교 내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현장 방문의 취지가 "학교 내 잠재적 위험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

이어 "방문한 학교 네 곳에서 발생하는 시설 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하고 공통점이 있었다"면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사례를 데이터화 해, 앞으로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문제 발생 전 보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종식 의원은 "오늘 방문한 학교 4곳에서 청취한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조남석 익산시의원 징계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오전 제3차 윤리심판원회의를 개최, 조남석 익산시의원의 당원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조남석 시의원의 행정시무감사장에서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조남석 시의원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 중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합부로 했다, 'OO'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냐' 등의 발언이 '당 윤리규범 제53조(품위유지) 제23(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의 품위에 명백한 해를 초래한 점을 들었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징계처분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명' 의견과 '당원자격정지' 의견이 개진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징계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